

## 세미나 초록

### <발표 주제> 글로벌 화학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 <발표 내용>

-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한 논란은 축소됐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응의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화학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이 이미 업계의 기본 상식이 되어, 다수 기업들이 실행 방법을 만들고 실행 /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 대표적 사례로 BASF의 경우 먼 미래 뿐만 아니라 '30년까지 탄소저감을 위한 구체 수단과 Action을 진행 중입니다. 비용과 투자/예산을 책정하고, 이러한 탄소저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서 모든 Progress를 총괄 점검 / 발표하고 있습니다.
- 국내 화학산업계의 경우 현실적 규모 있는 탄소저감은 ❶ 신재생전력 구매 ❷ 청정수소 도입 ❸ CCUS를 통한 탄소 제거 등 3개가 Main 수단입니다.
- 이중 신재생전력은 개별 기업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의 전력 믹스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 다수의 전력 다소비 제조업 기업들이 RE100 추진을 발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신재생전력 구매 니즈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육성은 진전이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청정수소는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육성 정책 드라이브가 점차 강화되면서, 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소재와 시스템이 최적화 기술 혁신과 규모화를 이룬다면, 그린수소 성장이 본격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산업에 적절히 참여한다면, 청정수소는 탄소저감에 일정 부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CCUS는 탄소포집 자체는 이제 점차 범용화된 기술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활용은 여전히 폐유전/가스전 이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동, 미국, 일부 유럽국 등 화석자원을 보유한 특정국 중심의 솔루션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한국 화학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적으로 대부분 발표했지만, 아직 그 방법은 요원하고 기업들의 움직임도 글로벌 기업 대비 더딘 상황입니다. 개별기업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이 없다면, 글로벌 탄소 규제 장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